‘티벳死者의 書’ 오디오북 출시

정목 스님 낭송·나왕케촉 음악

2시간 안에 죽음을 맞는 실제 준비를 할 수 있다.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중간계(中間界)에서 듣고 이해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해탈에 이르게 하는 책(Bardo thos grol)으로 알려져 있는 <티벳 死者의 書>가 국내 최초 ‘듣는 책(Audio Book)’으로 발매됐다. 자신이나 가족 또는 친구의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이 실려 있는 안내서를 음성으로 만나는 기회다.

생사의 업(業)을 짊어진 모든 생명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해탈의 길로 이끄는 궁극의 가르침을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 DJ 정목 스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낭송한다. 배경음악은 티베트의 영혼을 대금으로 연주해온 명상음악가 나왕 케촉(Nawang Khechog)의 앨범을 썼다. 총 CD 3장으로 구성된 <티벳 死者의 書>는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가호를 청하는 기원문을 시작으로 현재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 주는 지혜를 전한다.

<티벳 死者의 書>는 4세기 경 티베트의 영웅 파드마샴바바(Padmasambavah)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다. 1920년대에 불완전한 형태로 처음 영문판이 발간됐고 난해함으로 인해 충분히 이해되고 있는 책은 아니지만 최근 동서양에 널리 알려진 책이 되었다. 망원경이 우주의 비밀을 풀어준 것 처럼 인간 내면의 세계를 비춰 보인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된다. (02)733-3134

가연숙 기자

‘구슬정원’ 展

11월 2일까지 관악구 길상사

도심 속 아름다운 절집을 표방하는 ‘길상사(주지 묘행)’ 문화공간 지대방에서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이 장신구 100여점을 선보이는 ‘구슬정원’展을 11월 2일까지 연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에 자리한 단아한 도량 길상사는 마치 수도원을 연상케 한다.

구슬정원의 테마는 ‘꽃’이다. 비취를 중심으로 동양의 정서를 무광을 통해 함축된 시간을 담아 봉우리를 활짝 피웠다. 준보석만으로 세공된 구슬의 화려함은 향기를 머금은 듯 신비감마저 안겨준다.

전시회 수익금의 일부는 길상사에서 지원하는 티베트 난민 어린이 장학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길상사는 문화공간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주민의 친교와 화합의 장으로 지대방을 활용한다는 취지를 펼치고 있다. (02)883-7354

가연숙 기자

오대산 명주지역 문화유산 탁본展

11월 3일까지 월정사성보박물관서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정념)은 개관9주년을 맞아 11월 3일까지 ‘오대산명주지역문화유산 탁본’展을 개최한다. 관동대박물관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전시는 강원도 오대산 명주지역의 승탑과 비문을 중심으로 탁본해 공개한 것이다.

탁본은 종이와 기록의 결정체로 평가 받으며 암각된 문자나 그림무늬 등을 원형 그대로 종이에 찍어내는 것을 말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금석에 남아있는 자취를 추슬러 오대산 명현들의 숭고한 정신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큰 의미”라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탁본전은 크게 3부의 주제로 나뉘어 제1부 ‘오대산의 상징과 문양’ · 제2부 ‘오대산에 흩어진 기록을 명문으로 읽다’ · 제3부 ‘옛 비문에서 명주지역 고승의 찬란한 생애를 읽다’로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조계종 초대종정을 지낸 한암 스님과 종교인으로서는 최초로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탄허 스님 등의 비문이 탁본돼 전시된다. (033)334-1817

이나은 기자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10월 22일부터 CGV용산 일대

‘상실’로부터 ‘가족’을 치유하라!

영화 <너를 보내는 숲>의 한장면.

‘삶을 그리는데 있어 정해진 규칙은 없다.’

오늘을 살아가는 전 세계 가족의 자화상을 탐미해온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SIFFF 2008)가 올해로 제2회를 맞았다. 10월 22~28일 7일간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개막, CGV용산 일대에서 펼치는 이 시대의 ‘가족’을 향유해보자.

가족을 주제로 한 부분 경쟁 포함 비경쟁 국제 영화제로서 동시대 가족의 초상을 보여주는 가족영화들이 전체 프로그램에 포진돼 있다.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출품한 총 120편(장편 50편 · 단편 70편) 영화가 선보이는 가족에 관한 공감동감(共感同感)의 축제 한 마당이다.

특히 영화 관람을 통해 가족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만의 기획섹션 ‘힐링 시네마(Healing Cinema)’ 4편에 주목한다. 이중 두 편의 영화 <미스언더스탠드:23일|CGV용산 6관|19:30>와 <서든리:25일|CGV용산 6관|19:30>는 상영 후 영화 평론가이자 심리학 박사인 심영섭 한국영상응용연구소(KIFA) 소장과 함께 집단 심리 치료의 시간(Healing Guest Visit)을 갖는다.

영화치료는 다른 형태의 예술보다 수용자가 텍스트를 그럴듯하고 있음직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핍진성(verisimilitude)이 강하다. 역할극 · 내면아이치료 · 동일시 기법 · 셀프매트릭스 제작 · 메타포를 활용한 영화치료 기법을 동원, 수용자의 지각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치유영화 4편 <미스언더스탠드(The Upside of Anger)> <서든리(Suddenly)> <너를 보내는 숲(The Forest of Mogari)> <비터 앤 트위스티드(Bitter & Twisted)>의 주제는 ‘상실’이다. 각기 다른 대륙에서 제작된 이들 작품의 주인공들은 가족 구성원의 죽음으로 인해 남겨진 자들의 사랑과 슬픔의 여로를 뒤쫓는다. 한 가족의 성장 테 안에서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상실의 불가항력이 남겨진 가족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미스언더스탠드>는 가족 개개인의 다양한 감정이 한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바람난 남편에 대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테리(2005 시카고비평가협회상 여우주연상)는 폭력의 단단한 메커니즘을 해부한다.

스웨덴 영화 <서든리>는 교통사고로 인해 아내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잃은 부자를 주인공으로 한다.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비극 앞에 남겨진 이들은 서로를 치유하기 위해 애쓴다.

2007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수상作 <너를 보내는 숲>은 갑작스레 사랑하는 이를 잃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이별할 것인가?’ 질문을 던진다. 내면의 풍광을 잡아내는 채색화로 그려진 영상은 마치 독백으로 채운 일기와 같다.

호주 영화 <비터 앤 트위스티드>의 주인공 조단은 고도 비만에 무능력한 직장생활로 쫓겨나기 일보직전이다. 그의 아내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아들 벤은 성정체성의 혼란에 휩싸여 있다.

이상 상실의 영화들은 제각각 살아있음에 대해 이야기 한다. 죽음과 삶의 줄다리기 속에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끼냐고 묻는다. 정답은 없다. 가슴 시린 힐링 시네마 속에서 고요의 안식을 선사하는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해보면 어떨까?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신간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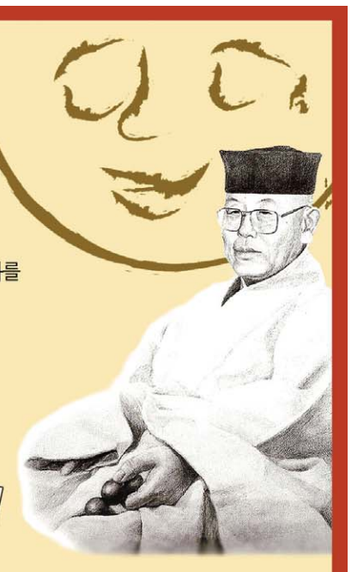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인 전강 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께서 전강 대선사님의 법거량과 법문, 일화를 재조명하여 보였습니다. 전강 대선사님과 대원 선사님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창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섬광과 같은 지혜로 수놓은, 최상승법의 자취없는 문양과 향 없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다>는 선(禪) 수행자들에게 10년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달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성게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삼아 / 달다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